

아오시마 신사: 정화

신사에 들어갈 때는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텐으로 이동하기 앞서 몸을 깨끗이 하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 같은 예법은 신들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심신의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데미즈야라고 불리는 손과 입을 씻는 정화의 장소에 놓인 수반과 국자를 이용해서 몸을 상징하는 손과 영혼을 상징하는 입을 행귀 줍니다.

정화 방법

1. 수반에 가까이 가기 전에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2. 국자로 수반에 담긴 물을 뜬 후 왼손에 물을 살짝 부어 적셔 줍니다.
3. 국자를 왼손에 바꿔 들고 오른손에 물을 살짝 부어 적셔 줍니다.
4. 다시 오른손으로 바꿔 들고 왼쪽 손바닥에 물을 살짝 덜어 입을 행굽니다.
5. 다시 한번 왼손을 행굽니다.
6. 국자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다른 사람을 위해 남은 물로 손잡이 부분을 씻고 수반쪽에 올려둡니다.
7. 데미즈야에서 나오기 전에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